

“밥쌀 재배면적 2만ha 격리·암소 1만마리 감축”

당정 ‘쌀·한우 수급 안정대책’

재배면적 신고·감축 할당 도입
배추 공급 확대·추가 장려금 ↑
농민단체 “직불금 상향이 우선”

당정은 10일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위해 올해 수확된 쌀 가운데 일정 규모의 초과 생산량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우의 경우 암소 1만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르면,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

오는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된 쌀 이외에 초과분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도 추진한다. 11월 중순께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당정은 반복되는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목표를 높이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쌀 등급제도 개편한다.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중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쌀 생산 기조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대규모 수요 창출을 위해 아침

밥 제공 사업을 확대하고, 전통술 지원, 장립종 등 신규 벼 품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의 경우 올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 내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 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지원 자금 규모도 올해와 같은 1조원 수준을 유지한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내놔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운용한다.

또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30→24~26개월)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해 보다 저렴한 한우 고기를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사 확산도 추진한다.

도·소매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

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한우 숙육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살펴봤다.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2024년산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격이 높은 배추는 출하장려금을 기존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늘려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모든 축종의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당정의 쌀 수급 대책과 관련, 지역 농민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제적 전남새농민회장은 “쌀 시장 격리가 완벽하게 이뤄져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평했으나 농업현장에서는 정상적인 농가소득을 담보할 만큼 쌀값 상승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거부한 만큼 쌀값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명확한지 의심스럽다. 농민들에게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불금액 상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조진용 기자

“물건 구매시 은누리상품권 환급”

1면서 계속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앞 길목은 은누리상품권 환급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 스태프는 “상품권 소진의 우려가 있다”며 확성기로 안내했고, 손님들은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에 부채질을 하며 불멘소리를 냈다.

김공녀(75)씨는 “30번째 줄을 서고 있는데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면 최소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 상품권이 소진되면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 힘들게 기다린 보람이 없어질까 걱정된다”며 “직원을 늘려 처리가 빨리 이뤄지게 하거나 환급 장소를 분산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 작년 행사기간에는 말바우시장에 갔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인 강모(58)씨는 “오후에는 그나마 사람이 줄어든 것”이라며 “오전에는 내내 고성아 오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통제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남은 기간이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

전남도, 키르기스스탄에 전력손실방지시스템 구축

사상 첫 외교부 공공협력사업 선정 632개 에너지기업 해외 진출 발판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 개발도상국에 첨단기술력을 전수하게 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외교부 국제협력단(KOICA)에서 공모한 2024년 공공협력사업(ODA)에 최종 선정돼 키르기스스탄에 정전방지·전력손실방지 시스템 구축 및 기술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협력사업은 정부, 공공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협력단은 올해부터 신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기존에는 사업 착수까지 2년이 걸리던 것을 즉시 착수하도록 개선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에너지 부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 도입된 패스트트랙 공공협력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정된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전력계

통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산전원 제어 SCADA/DMS 구축사업’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앞선 기술력을 활용해 키르기스스탄의 정전과 전력손실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계통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력망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키르기스스탄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력계통 운영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전력망 시스템 전문기업인 파워플러스이앤씨(PowerPlus ENC)는 배전망 설계 등을 담당한다. **오지현 기자**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편성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한정승인 공고
광주지정병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4년단10305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김순진 (370205-2*****)
최후주소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404동 904호 (연산동, 주공4단지아파트)

위 망 김순진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9월 11일
공 고 인: 김병식
한정승인 수리일: 2024년 9월 10일
공고기간: 2024. 9. 11. ~ 2024. 11. 10.
채권신고장소
: 목포시 비파로 96, 102동 4201호 (상동, 목포하당중흥에스클래스점점)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동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재검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붙임 2】공고 제 2024-4호

2025년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제안서 공모 안내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광주지역 환경개선 및 보전 정책수립, 현안문제 조사연구, 산학연협력기술 개발 등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공모함

추진목적
○ 광주지역의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조사/환경기술개발/산학연협력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광주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친환경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공모분야
분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현안과제
정책조사
기타

공모내용
■ 광주지역 환경분야 유망 라이징 스타기업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연구
■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오염물질 저감 및 자원회수 기술개발 연구
■ 환경분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중장기인 및 신기술 개발연구
■ 환경현안 문제해결 기술의 실증을 위한 기획연구과제
■ 민원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등 대기분야 기술개발 연구
■ 수질개선 및 안전한 수자원 확보 등의 수질분야 기술개발 연구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정책마련, 폐기물 분야 기술개발 연구
■ 정부/지자체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및 방향 제시 마련을 위한 연구 (단, 법령에 의거한 법정과제는 제외)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광주지역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 현안과제는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주제로 현안과제를 산학연협력으로 제안 시, 우선선정 대상임

연구과제 선정절차

과제공모	사전검토(자제규정)	지원위원회 연구제안서 선정	환경부 중복성 검토	중앙센터 연구 책임자 공모 및 선정	영진청 유형협정 형성협의 사업계획 의결
내부 심사	정책 활동도 검토	직접성 타당성 검토	연구 제안서 선정	중복성 검토	연구 책임자 공모 및 선정
준비 (24.9)	1단계 (24.10월)	2단계 (24.10월)	3단계 (24.12월)	4단계 (25.1월)	5단계 (25.2월)

■ 신청방법
○ 참가자격: 행정기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사회·시민단체, 기타 등
○ 제출기간: 2024. 9. 4.(수) ~ 2024. 9. 2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파일명: 제안서.hwp)
○ 제출방법: www.gjeec.or.kr 공지사항의 제안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기한연수)

■ 문의 및 제출처
담당자: 교육·연구 부장
주 소: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공학과 301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누 리 집: http://gjeec.or.kr
이 메 일: seheerim@daum.net
전 화: (062)530-3991, FAX: (062)530-3994

2024. 9. 4.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